

오로지 독학생만을 위한 국어 독학 공부법

By 솔샷

차례

1. 서론
2. 화법/작문 + 문법
3. 독서
4. 문학
5. 실모와 EBS연계 해야합니까?

지극히 주관적인 국어 공부 방법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제예시를 들 때는 ebs에서 기출 pdf로 받으셔서 옆에 띄우시고 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1. 서론

제 국어 성적은 16수능 95점 17학년 6월 92점 9월 91점 17수능 98입니다.

17학년도 국어는 뜬금없는 유형 변화로 인해 많은 수험생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저 역시도 6,9월 문제와 성적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현역 모평때에 비해 6~7점 낮아진 점수에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제가 국어 공부법을 쓰는 이유는 관심을 받고 싶어서도 제 국어 실력을 자랑하고 싶어서도 아닙니다. 비싼 수능 강의를 듣지 않고 변화된 수능에서 독학으로 단기간에 성적 상승을 이뤄냈기 때문에 국어를 독학으로 도전하려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어 쓰는 겁니다. 제 국어 공부는 당연한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당연한 것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성취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출문제는 당연히 반복해서 풀어야합니다. N회독이 효과가 없으시다는 분이 많은데 기출문제엔 평가원이 학생에게 묻고자하는 개념과 문제출제 방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출분석은 누군가 바로바로 가르쳐주기보다 N회독을 하며 '왜 선지를 이렇게 구성하였나?', '지문의 어느 단락에서 이 선지를 뽑아낸 것인가?' 하는 것을 직접 고민해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게 사고력이고 그게 국어실력입니다. 기출문제를 1회독 하실 때는 일단 닥치는대로 풀어보고 해설지는 보지 않는 걸 권장합니다. 틀리면 틀린대로 넘어가시고 혼자 왜 틀렸는지, 왜 이 선지가 답인지 혼자 깊게 깊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2회독부터, 적어도 3회독쯤부터는 지문과 선지를 하나하나 꼼꼼히 연결하며 왜 이 지문의 이 단락에서 이 선지를 뽑아냈는지, 이 지문에서 묻고싶은 핵심이 무엇인지 철저히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ㄴ. 화법/작문+ 문법 (사용교재: 마더텅 화작문, 마달, EBS연계교재)

화법/작문은 점점 독서지문처럼 꼼꼼히 읽어봐야 하도록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묻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또한, 화법/작문은 매년 수능에 익숙하지 않은 유형의 문제나 지문을 내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15수능[3~5], 16수능 사이클처럼 말이죠. 17수능 또한 제겐 좀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기출을 보시다 보면 똑같은 형식과 똑같은 선지가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5수능 1번 문제의 선지를 예로 들겠습니다. 귀찮아도 기출문제 모니터에 띄우고 봐주세요.

질문을 통한 이해, 배경지식, 경험 환기, 학생의 요청에 따라~....

이런 선지는 화법과 작문 많이 푸시다보면 자주 나옵니다.

지문에서 화자가 질문을 할 때, 경험을 말할 때, 추가질문을 할 때

사진 등의 시각자료나 구체적 수치를 제시할 때, 첫 문단에 발표 순서를 안내하거나 논의 주제에 대한

현황, 원인등을 제시할때....

그 지문들이 선지화 되는 것이 N회독을 하시다보면 보이실 겁니다.

전 이런 선지화되는 지문들을 모두 정리했고 그 결과 화법과 작문을 푸는 속도가 단축되었습니다.

화법과 작문은 평가원 기출량이 얼마 안됩니다. 직접 공부하시면서 지문에 자주 나오는 표현들과 선지들을 찾아보세요.

직접 풀면서 느끼시는게 N회독의 가치를 좀 더 잘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건에 따른 작문을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ex) 15수능 7번, 9번

각 조건에 1,2,3 숫자를 붙이시고 선지에 하나하나 대입하면서 풀어보세요. 1번 선지부터 1,2,3 조건 중 몇 개가 있는지 파악하시면서 내려가다가 세 조건 모두 만족하면 그게 답이겠죠? 이렇게 하시면 답도 명확하고 불안감도 줄어듭니다. 조건충족이 안된 선지는 바로 지워버리면 되니 시간도 오히려 줄어들죠.

문법은 17학년도부터 보기를 길게 주는 문항이 신 유형으로 나옵니다. 너무 쫓지 마세요. 그냥 보기가 길어진 것이고 그에 따라 정보량이 많아진겁니다. **독서지문 풀다고 생각하시고 푸는 게 좋고** 문법에 배경지식을 많이 쌓아놓으면 읽는데 편해집니다. 주의하셔야 할 것은

절대로 **배경지식으로만 풀지마세요.** 지문 제대로 읽으셔야합니다. 배경지식은 독해를 위한 보조도구일 뿐 여러분을 정답으로 바로 이끌어주지 않아요.

당연히 문법 또한 기출문제는 반복해서 풀어봐야합니다. 평가원이 학생에게 원하는 수능 국어지식은 기출에 모두 다 들어 있습니다. EBS 연계교재도 문법문제 만큼은 전부 풀어보는 걸 권장합니다.

기출문제가 질렸을 때 전 매번 시간을 정해두고 문법문제를 푸는 연습을 EBS 연계교재를 통해 진행했고 그 결과 문법 문제에 대한 자신감과 배경지식이 쌓였습니다. EBSi 홈페이지에 pdf파일로 연계교재가 올라가있으니 기출 질릴 때 문법 부분만 프린트해서 풀어보세요.

이외에도 전 배경지식을 쌓기위해

- EBS 수능 교과서 알짜 국어문법 총정리 240제 (2016)

- 떠먹는 국어 문법 (솔티박스)

등의 교재를 참고했고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좋은 교재니 둘 중 하나쯤은 풀어보시는걸 권장합니다. 이런 교재들에 나오는 수능 문법개념들은 외울 수 있다면 되도록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주 나오는 문법개념은 반드시 외우세요. 문제풀이 속도가 빨라집니다.

시간 없으시면 국어 기출 반복하면서 배경지식 쌓으셔도 됩니다. 사실 기출에 나오는 <보기>문항들이 모두 배경지식이니까요.

잠시 6, 9월 모의고사의 중요성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국어 기출분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해 6, 9월입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6, 9월은 수능을 대비해 평가원에서 치르는 것이므로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독서-문학 순의 문제배열 파괴, 문법보기와 독서지문의 장문화, 독서지문 복합제재 (기술+예술/과학+예술 등), 독서/문학 복합 지문등 도 6, 9월에 모두 예고되었던 거죠.

물론 난이도의 경우는 국어라는 과목의 특성상 평가원의 의도대로 잘 조절되지 않아 통수원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6, 9월에서 신 유형과 문제 스타일의 변화를 찾아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6, 9월은 세세히 분석하시면서 이전 수능, 모평과의 차이점을 잘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일례로 2017 수능과 9월 2번/ 2017수능 6, 9 3~5번을 보시면 문제 형식의 유사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작문쪽은 이전과 비슷하게 출제 되었으나 6,9월과 수능이 다른 년도의 작문보다 더 유사성을 띠니다. 아마도요.... 허허.

ㄷ.독서 (사용교재: 마더텅/국어의기술/독해력강화도구3가지/마달)

17학년도 독서지문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지문이 장문화되면서 정보량이 많아졌고, 유기성을 느끼며 한번에 쭉 읽고 풀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평가원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교육청들은 따라가지 못했고 기존 기출회의론과 함께 각종 실전모의고사가 불티나게 팔리는 계기가 되었죠.

하지만, 기출의 중요성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출의 지문과 선지 퀄리티를 따라갈 수 있는 모의고사는 없습니다.** 평가원이 내는 시험을 어떻게 평가원보다 더 비슷하게 낼 수 있겠습니까? 기출 푸세요 제발. 현역이시면 4번은 푸세요. 전 현역+반수합하면 7회독은 한 것 같네요. 기출교재는 마더텅과 마달을 사용했습니다. 약한 문제유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마더텅을 사용했고(현역때) 마달은 기출N회독용으로 사용했습니다. 마달이 책이 커서 실제 시험지랑 크기가 비슷하기때문에 다른 교재들보다 좋습니다.

제 생각엔 독서는 독해력 80%+ 문제풀이력 20%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독해력입니다. 독해력이 좋다는 것은 지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이해하고 머리속에 구조화해서 저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문이 이해가 안되면 '이게 뭔 개소리야 사비'라는 소리가 나오며 지문이 읽히지 않습니다. 그럼 당연히 문제를 못 풀죠. 지문을 이해하더라도 그 정보가 머리속에 구조화되어 저장되지 않으면 문제 읽으면서 까먹습니다...

독해력 = 지문이해 + 정보구조화라고 합시다. 이 둘은 완전히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잘되는 지문은 정보를 구조화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의무론과 공리주의가 구분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 지문을 읽을 때 의무론의 입장과 공리주의의 입장을 잘 구분해 정보를 구조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낯선 정보일지라도 구조화를 잘 해놓으면 쉽게 이해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띄어쓰기도 하지 않고 내용에 따라 문단을 나누지도 않은 글을 이해하는데는 띄어쓰기도 잘 되어있고 내용에 따라 문단을 나눈 글을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심지어는 정보구조화를 잘해 놓으면 이해를 못하는 지문도 그냥 대입해버려서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고 이해도 안되지만 적절한 선지를 찾을 때 정보를 잘 구조화해 놓으면 A의 수많은 특성중 B가 있다는 것을 쉽게 기억할 수 있고 그것을 바로 답으로 찍어버리면 되는거죠.

지문이해는 살아오며 쌓은 배경지식과 EBS연계로 인한 익숙함으로 높일 수도 있지만 배경지식을 이제와서 쌓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EBS연계에 의존하는 것도 리스크가 큼니다. **지문**

이해와 정보구조화 능력을 기르는데 가장 좋은 것은 많은 지문을 읽어 보는겁니다. 많은 지문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지문이해 능력과 정보구조화 능력이 늘어납니다. **독해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그냥 막 읽는 것보다는 기출지문을 읽으며 한 문단마다 그 문단을 요약하는 연습을 합니다.** 요약은 무조건 한 문장으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 문단에서 중요한 정보들을 1문장~3문장 가량으로 요약하는 연습을 하세요. 익숙하지 않으면 4~5문장 가량으로 지문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N회독하면서 같은 지문을 여러 번 보다보면 요약은 점점 간결하고 짧아지기 마련이며, 굳이 다시 요약을 하지 않아도 머릿속에 정보가 모두 구조화되어 정리된 상태일겁니다.

저는 기본독해력 강화를 위해서 마달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지문읽는법'을 읽고 그에 따라 지문을 읽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문 읽는법이 있거나 인강 강사님에게 배운 지문 읽는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라 지문을 읽으며 요약하세요. 전 마달사이트에 올려져있는 2015비문학요약과제 통합본을 제본해 하루 2지문씩 6월부터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했고 다 끝낸 후에는 2016년에 새로 올라오는 것들도 수능전날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기본독해력이 많이 올라가는 것을 느꼈고 이후 제가 소개할 '독해도구'들도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구조화를 위한 독해도구는 이해황 선생님의 국어의 기술1,2/독해력강화도구3가지를 통해 배웠습니다.

국어의 기술은 독해도구를 알려주고 문제풀이력을 길러줍니다. 독해력강화도구3가지는 독해도구와 더불어 기본독해력을 올리기 위한 방법들도 적혀있으므로 독학으로 공부하실 분들은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저 3권의 교재를 통해 배운 독해도구를 여기 모두 써 내려갈 수는 없으므로 딱 2개만 소개하겠습니다. 이 설명은 매우 허접한 설명이니 국어 독학 하실 분들은 저 책 꼭 사서 읽어보세요. 인강강사님들 강의+책값에 비하면 매우 싼 가격일겁니다.

a. $A \Rightarrow B$

원인과 결과, 조건문 등에 사용합니다.

선지에는 인과관계를 역전시키거나 지문에 $A \Rightarrow B$ 로 나온 문장을 $C \Rightarrow B$ 등으로 바꿔버려 오답을 만들곤합니다.

예를 들어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A) \Rightarrow 예측을 도출한 가설은 새로운 지식을 추가한다 (B) 가 지문에 있다면 선지에는 예측이 틀려도($\sim A$) \Rightarrow 가설은 새로운 지식을 추가한다.(B) 등을 선지로 만듭니다.

이외에도 지문에는 나와있지만 상관이 없는 문장을 끼워 넣어 인과관계로 만들거나 조건문으로 만들어 버리면 굉장히 매력적인 오답이 만들어집니다.

b. 이항관계

제가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은 독해도구 입니다.

비교와 대조로 이루어진 지문은 매우 많으며 A개념과 B개념의 차이점, 공통점 등은 반드시 문제화 되는 그지문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쉽게 머릿속에 구조화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항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2017수능 포퍼지문에서 경험과 무관한 지식, 경험에 의존하는 지식이 나왔을 때 둘을 1,2로 구분해봅시다. 지문상에서 1에 수학적지식과 논리학지식이 묶이게 되고 2에는 과학적 지식이 묶입니다. 긴 단어를 A나B 1이나 2등의 한 글자로 치환할 수 있고 그 글자 안에 다른 단어를 한꺼번에 묶어버리는 효과도 줍니다. 더 읽어가다보면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의 측면에서는 1에는 분석명제, 2에는 종합명제라는 단어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항대립은 지문의 정보를 구조화하는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지문의 그 글자 위에 바로 1,2로 표시하면 되므로 시간도 크게 절약되고 문제를 풀때도 선지에 그 단어에 1,2 등을 붙여가며 풀면 쉽게 쉽게 문제를 풀수있어 문제풀이력 또한 상승됩니다.

긴지문을 풀때는 정보량이 많아져 기호가 1,2,3 A,B,C ㄱ,ㄴ,ㄷ 등 복잡해지고 오히려 구조화에 방해가 됩니다.

그를 방지하기 위해 구조도라는 것을 그립니다. 그 지문에 대한 정보를 아래로 뺏어나가는 마인드 맵식으로 정리하는 것이죠. 구조도 독해에 대한 PDF파일을 이해항 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올립니다.

오해를 하실수도 있을 것 같아 미리 밝힙니다! 전 국어의 기술 저자와 전혀 관계없습니다. 구조도 등의 독해도구들은 기본 독해력을 기르지 않는다면 고난도 지문에서는 그 효용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어의 기술이 있는 독자들을 위해 쓴 pdf파일이라 국어의 기술에서 다른 지문의 경우 생략되었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범보이기 오른편에 작게 해당 지문이 몇 년도 수능인지, 6,9월 평가원인지 적혀있으므로 참고 하셔서 지문을 프린트 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pdf 기준 16p는 전 지문을 다 다루고 있으므로 16p만 보셔도 구조도를 국어의 기술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선 파악하실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풀이력은 그냥 쉽게 말해 문제 잘 푸는 능력입니다. 이런 유형은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편하고, 어떻게 문제를 빨리 푸는가... 길게 적어 봤는데 제가 써놓고도 와닿지 않는 추상적인 말들 뿐이라 **'아 이게 문제풀이력에 가장 도움되었다!**' 하는 동영상과 책으로 대체합니다.

문제풀이력에 도움이 되었던 책은 앞서 서술했던 국어의 기술 1,2권 + 기출 N회독

동영상은 오르비에서 활동하시는 국력발전소님의 영상입니다.

<http://orbi.kr/0009492963>

≡.문학 (사용교재: EBS연계교재/고전시가가 쉬워지는 감상 원리/ 문학 개념어와 논리적 해석)

제 수기보다 훨씬 나은 국력T의 영상 먼저 보십시오. 설명 정말 잘 되어있고 저 접근법대로 국어 공부하시면 문학공부 잘 되실겁니다. 꼭 수기 읽기전에 저 영상부터 봐주세요.

<http://orbi.kr/0009545119>

문학도 기출문제가 최급니다. 아니 문학이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중에 있는 실모나 사설 모의고사의 경우 자기 멋대로 문제의 기준을 만들어놓은 질 안좋은 문제 OR 정답의 명확성이 떨어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괜히 왜 이게 답일까 고민만 하게 만들고 기분만 상합니다. 덧붙여 문제풀이에 이상한 기준을 심어줍니다.

문학은 평가원 기출들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부족하시면 차라리 04, 05년 이전 수능을 푸시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교육청 문제들 푸세요. 사설모의고사나 시중의 실모들은 문제 하나 만드는 비용, 인력, 출제기관의 신뢰도 등 그 어떤 요소도 평가원 기출에 못 미칩니다.

문학 기출분석은 시/소설 등 작품에 따라 접근법이 달라지는데 위의 국력T영상 보시면서 저 접근법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시에서는 어떤 것을 염두해두고 읽어야하는지 (Ex) 중심제재, 제재에 대한 시적화자의 태도 등

소설에서는 어떤 것을 염두해두고 읽어야하는지 (Ex) 인물간의 관계, 중심사건 등
저 영상보시고 기출분석 하시면 됩니다. 마닿 푸시는 분들은 이겨놓고 싸우는 법 읽으세요.

사실 문학은 그냥 인강 하나 사서 들으시는게 낫습니다..... 라고 말하면 독학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쓴 의미가 없겠죠. 근데 이거 진심임ㅋ. 어쨌든 저처럼 문학을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어 쓰는 국어 문학 공부법입니다.

문학이 어려운 이유 첫 번째는 해석의 다양성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이 해석의 다양성을 제한하기위해 주는게 <보기>입니다. <보기>를 주는 문제는 무조건 <보기> 먼저 읽으셔야 합니다. 해석의 다양성을 미리 제한 해놓고 그 문학 작품을 감상하게 되면 문제풀이에 도움이 되고 감상하는데도 배경지식이 없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두 번째 이유는 개념어에 대한 이해부족입니다.

종종 시상의 환기에서 환기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학 개념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세우셔야 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교재는 문학 개념어와 논리적 해석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개념어에 대한 정리뿐만 아니라 '문학이란 무엇인가?', '문학을 어떻게 접근해야하는가'를 다룹니다. 2주만에 끝내는 권규호의 국어 문학 개념어도 좋다고 합니다.

위 책을 통해서 문학개념어에 대한 기반을 다지셨다면 기출문제를 통해 자신이 확실히 개념어를 이해 했는지, 국어 문학에 대한 접근법을 배웠는지 테스트 해보셔야합니다.

근데 저 책 읽고 문학 다 맞출거 같으면 이런 글 읽지도 않겠죠?... 당연히 틀리는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있습니다. 바로 틀린 문제들을 통해 다시 평가원 문학 접근의 기준을 확립하는 겁니다.**

전 문제를 풀다보면 내가 보기엔 과거 회상 맞는데...? 내가 보기엔 이것도 회의적 태도인데...? 내가 보기엔 이건 독백적 어조 보다는 대화체 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노트를 꺼내 그 문제를 자르시거나 적어두세요. **틀린 부분이 독백적 어조라면 독백적 어조가 맞았던 때는 언제인지, 언제가 대화체였는지 기출문제들을 뒤지며 일일이 다 찾습니다. 그를 통해 어느 정도까지가 대화체로 인정되고 어느 정도까지가 독백적 어조로 인정되는지 문학 접근의 기준을 확립합니다.**

개소리같지만 전 효과 많이 봤습니다. 일단 제가 헛갈려하는 개념에 대한 평가원 기출의 사례들을 모두 모아보는 것 만으로도 기출반복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고전시가의 경우는 제가 위에 적어드린 고전시가가 쉬워지는 감상원리로 해결했습니다. 이 책은 문학 시어 하나하나에 표시를 하며 비문학처럼 문학을 풀 수 있는 감상원리를 제공합니다. 많은 고전시가가 실려있는데 시간 없으시면 중요도 표시되어있거나 이전에 출제 되었던 작품들만 봐주시면 됩니다.

덧붙여 저 책에 나와있는 감상원리는 고전시가 뿐만 아니라 다른 문학작품에도 적용됩니다. 국어 초보분들은 꼭 사서 읽으세요.

오로지 독학생만을 위한 국어 독학 공부법

By 솔샷

□. 실모와 EBS연계교재 해야합니까?

돈 있고 시간 있으면 하세요. **제 생각엔 실모는 퀄리티 검증된 실모 중심으로 수능 8주 전부터 주 1회씩 한 회차씩 풀어서 8회차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작년 국어 기출의 변화에 너무 당황했고 덕분에 현역 6, 9월에 비해 6점 이상 급락했기 때문에 실모(봉소오프)를 구입했습니다. 이런 불안한 상황들을 이용해서 최근 퀄리티가 입증되지 않은 실모들이 판을 치고 수험생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장사를 하더군요.

가장 평이 좋은 봉소오프 11회차를 풀었는데 솔직히 돈이 비싼만큼 현역 때 찼던 사설모의고사에 비해 좋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난이도가 높은 지문들을 나열해놔서 시간 배분이 잘 안되었고 문학 또한 평가원만큼 잘 냈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건방진 소리지만요.

11회나 사서 풀었으면 많이 푼 것 아니냐 싶겠지만 저도 그때 국어영역의 변화로 불안감이 급증한 상태라서 입 소문에 속아 샀습니다. **실모효용성은 실전적응용(문제풀이시간), 낯선 지문에 대한 내성 쌓기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실모는 문제풀이력도 올려주지 않고 자신의 실력에 대한 회의감만 높일 뿐입니다. 잘못된 문제풀이 기준을 심어주는 최악의 결과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어EBS연계교재

재수생- 하세요. 문과면 시간도 많으면서 EBS도 안하다니 양심은 있습니까? 재수생이면 기출 질릴정도로 돌립니다. 문제는 안 풀지라도 지문이라도 봐두고 문학작품들도 익혀놓으세요.

반수생- 시간 부족합니다. 인터넷 강사님이나 오르비에 몇몇 강사분들이나, 마달의 플러스 알파닷컴 같이 나올 것 같은 몇 작품 추려서 나오면 그거 하세요. 돈 있으신 분들은 EBS 100선 이런 강의 들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마달 홈페이지에서 플러스 알파닷컴 제본해서 보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추상적이다거나 이해가 안된다는 부분은 pdf 페이지를 넣으셔서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세요!